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11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우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 얼음 깨기

## 아우구스티누스와 어머니

4세기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뛰어난 지성을 가졌지만,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신앙을 비웃으며, 방탕한 쾌락과 복잡한 이교 사상(마니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명예와 욕망을 좇아 로마와 밀라노로 떠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했듯이, 그는 어머니의 경고와 눈물을 외면하며 수많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영적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아들이 방황하고 타락하는 30년 동안, 어머니 모니카는 단 한 번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방황에도 그들을 멀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니다.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자신의 지적인 오만과 죄악이 헛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고, 오직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덕분에 구원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은 곧 하나님의 긍휼에 반응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로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나눔] 모니카의 기도처럼 나의 상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교회행사

## 11월

- 1일 문답식/굿월센터야유회
- 2일 세례식
- 9일 성찬식/더가족세미나
- 16일 추수감사주일
- 19일 마하나임/트리니티중창단
- 29일 선교학교 수료식

## 12월

- 14일 목장 방학 / 어와나 종강
- 24일 성탄전야
- 25일 성탄
- 31일 송구영신예배

## 경배 찬양

##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을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하리

(후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 소식

1. **26년 달력**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탁상용만 제작했으며, 태국밀림교회와 캄보디아 여호수아센터, 다음뎀봉센터, 굿월센터 등을 달력에 담았습니다.

2. **어와나 교사모집** 2026년 어와나 교사를 모집합니다.  
커비스 00명, 스팍스 00명, 티앤티 00명  
문의 김기훈 집사 (010-9799-3933)

## 선교

## [김병철 선교사]

## 미안마

-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된 종으로 서로 협력하고 마음다해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도록
-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나는 캠프, 번역, 섬김 되도록
- 수많은 위험과 문제 어려움 중에도 주님과 함께여서 충분하고 넉넉한 행복한 선교사요, 복음의 증인 되도록.
- 기도하며 준비하는 '선교훈련학교'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준비되고 만들어져 미안마 땅에 자국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파송되도록.

## 한문장 큰 울림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는 자유를 허용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그분의 구원 계획을 무효화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C. S. 루이스

## 주의 크신 공화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느헤미야 9장 31절]

느헤미야 9장은 성벽 재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듣고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통곡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다시 모여 금식하며 회개했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이 본문은 가나안 정복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루며, 최종적으로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언약을 갱신하고 인봉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신다는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 1\_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9장 23-25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단순히 외적 조건(많은 자손,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는 140년이 지나도록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실감하지 못했지만, 느헤미야 8-9장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을 세세하게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눔]** 내가 현재 하나님의 약속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 2\_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만사형통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29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며 사사기의 죄악 패턴(구원→평안→타락→징계→부르짖음→구원)을 반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패턴은 사사기에서만 20번 이상 반복되었고, 다윗 왕 시대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눔]** 내 삶에서 반복되는 죄악의 패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화를 어떻게 경험했나요?

### 3\_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새로운 출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불순종을 참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공화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공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으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귀환한 공동체처럼 우리도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탐하고 실패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베푸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남게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음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잡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